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출가자에게는 밥먹는 것조차 수행이다. 사진은 송광사 발우공양 장면.

<사진제공 안정현>

발우공양으로 되새겨 보는 출가정신

절약...공생...소욕지족 “해탈 향한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철저한 무소유의 삶
마음 풍요롭게 하는 길

출가(出家)는 속세(俗世)를 등진 것이다. 그렇지만 또다른 한 세상을 찾는 일이다. 발우하나 달랑 옆에 끼는 채.

삭발한 것만으로 출가라 하지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아픔을 내것으로 여기며 그들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발심을 할 때, 이를 출가라 한다. 출가는 몸종아리의 편안함을 구함도, 이익이나 명예를 위함도 아니다. 오직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함이다.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출가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친출가의(親出家)로 가족과의 결별하는 것이다. 둘째는 오온출가(五蘊出家)인데 이는 일체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한다. 셋째는 법계출가(法界出家)로 번뇌의 업보,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참된 수행자는 고고하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자는 수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욕물(物)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욕물이란 탁발(托鉢) 하는 발우와 큰 웃인 상가리, 웃웃인 울다리, 속웃인 안타회, 깔거나 덮는 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사진은 탁발장면.

구, 이를 뒤를 때 쓰는 도구 등 여섯 가지를 말한다. 출가자들에게는 이 육필만이 소유의 전부다. 그야말로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을 사는 이가 출가자인 것이다. 하지만 욕물도 ‘내것’이 아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어찌 ‘내것’, ‘네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출가는 모두 버림으로써 모두를 얻어야 하는 고령의 길이다. 그렇기에 출가의 모든 행위는 수행이다. 발우공양(鉢供養)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발우공양은 평등, 정약, 감사, 공생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수행 행위다. 여기에는 출가 수행자가 음식을 매개로 중생과 함께 하는 자비의 정신이 숨어있다. 또한 음식을 나눠먹고, 유·무주 중생을 생

각하며, 나아가 환경의 건강함까지 고려한 지혜로서 인욕 정진이라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 살아있다. 깨끗이 비운 발우 속에 수행자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의 세계를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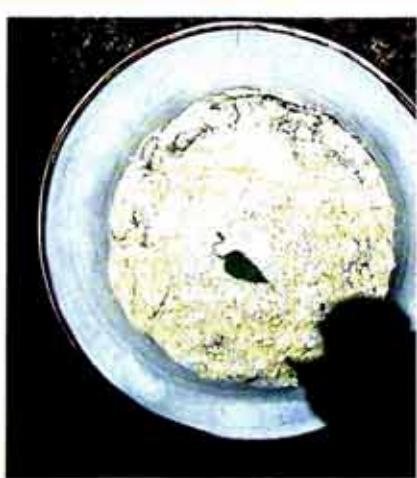
출가자들은 발우를 가지고 밥을 비는 탁발(托鉢)을 중요한 수행으로 삼는다. 부처님 또한 탁발을 통한 결식(乞食)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일좌식과 부처여식의 규칙이 지켜졌다. 일좌식이란, 비구는 오전 중에 거리에 나가 음식을 얻는데 탁발로 얻은 음식을 오전중에 한끼만 먹는 것으로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여식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다. 만약 결식한 음식이 많을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취하는 발우공양에는 출가정신이 배어있다.

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생활수단으로 정한 데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는 많은 중생에게 복과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둘째는 아rian심을 질복시키기 위함이고, 셋째는 몸과 괴로움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는 탐욕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3월 2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되새기며 봉축한다. 그러나 그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게으르지만 하다. 모든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출가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길이 아닐까. 글=김두식 기자(doo@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당귀잎떡

400여 년 전, 왜군이 조선을 유린할 때, 의로운 두 사람이 있었다. 일만자에 달하는 상소문을 12차례 올려 일본의 침략을 미리 경고했다가 두 번이나 억울한 귀양살이를 겪은 중봉 조현과 서산대사의 수제자였던 기허당(奇虛堂) 영규 대사는 당시 전라도에서 복진하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1592년 8월 18일, 협공을 약속했던

전라순찰사 권을 장군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낮과 곡괭이가 전부였던 700여 의병들이 조종으로 무장한 1만5천명의 왜군과 격돌하기 전이었다. 싸움을 앞두고 영규 대사는 보석사 법당에서 마지막 향을 사르며 삼백을 울리다 잠박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한 여인이 나타나 “스님, 공격을 이레(浬)만 연기하십시오.”라고 호

혈액순환 촉진...부인병에 효과

소하지 않는가. “그건 무슨 연유요?” “이레만 연기하면 스님과 중봉 대장(宗禎)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소.” “내가 살기 위하여 적을 눈앞에 두고 공격을 연기한단 말이요?” “그렇게는 못하오.” “당귀 꽃이 피는 일주일만 공격을 연기 해주시오, 스님!”

여인의 예원소리가 맴도는 가운데 잠을 깬 영규 스님은 혀를 찼다. “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연기라니 안 될 말이지, 암!” 보리쌀을 탈탈 털어도 내일 아침 먹을 식량밖에는 없었다. 들뜬 판의 푸른 당귀 밭이 황토 흙으로 뒤집

어지도록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다. 처음에 왜군은 친한 당귀 향에 무슨 계책이 숨은 것으로 착각하여 쉽게 달려들지 못했다. 마침내 세 번이나 왜군이 당귀 밭 언덕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고 보면 금산의 당귀가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금산 보석사 주변에서 자생하는 당귀의 맛과 향은 최고 수준이다.

■ 약성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당귀잎가루(승점초), 쌀가루, 설탕, 찬궁 달인 물, 송화가루, 꿀, 굵은 소금
- ① 불린 쌀에 소금간을 해서 쌀과 찬궁 달인 물을 섞어 체에 내린 뒤 송화가루를 섞어 다시 체에 내린다.
- ② 당귀잎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비벼서 체에 내린다.
- ③ 대나무 찰기에 ②를 깔고 그 위에 ①을 담고, 다시 ②를 얹어서 쪄낸다.
- 당귀는 신경안정작용이 있어 두려움을 없애주며 혈액순환을 돕는다.